

오직 하나님만 사모해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마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호흡하는 것까지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식하면 여지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떨어지므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그러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순간 자기를 의식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마음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로 가슴을 치며 머리를 시멘트 벽에 들이 받으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라”하고 자신을 짓이겼다.

오직 그 생각이 하나님께만 있어 온 정성을 하나님께만 기울이게 되어 있는고로 다른 생각은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과거를 생각하려 할 수가 없었고, 상대를 의식하려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도로 사모하는 그 향함의 정도가 한 시간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한 층 고도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이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고로 다른 생각은 하려야 할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간절함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중에 마귀는 형제들과 말을 하는 사이에 틈을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피하여 접촉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그 은혜를 쏟을까봐 발벌 때는 생활을 오십평생 했던 것이다. 노력없이 안되어지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혼자 걷기도 많이 걸었다. 일생을 오직 일평생심으로 하나님 밖에는 몰랐던고로 그 귀한 은혜를 쏟을까봐 늘 찬송을 쉬지 않고 불렀다. 온 밤을 지새우며 애틋한 심정으로 밤새도록 불렀던 것이다.

이긴자 걸어온 발자취 따라와야...

그러므로 이긴자가 걸어온 길을 만분지일만 따라와도 구원은 문제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히 말했다. 유사 이래 이긴자가 걸어온 이와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들! 이긴자가 걸어온 그 발자취는 생각 전체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다.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으로만 여겨져 멸시의 대상자가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는 데 일부러 하나님처럼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누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처럼 여겨져 머리 숙이며 마음 속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했던 것이다. 종의 종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율법에 걸리는고로 곧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이다.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거하시지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든지 윗 사람 노릇을 하면 은혜는 순간 떠나버리는 것이다.

자유율법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긴자와 친하다고 해서, 이긴자의 손을 거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격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는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 마음이 항상 희생적이며 항상 겸손하며 항상 종의 종인 입장에 서야 그래야 은혜가 간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인 것이다.

이 사람이 항상 홀로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형제의 사정이 진짜 내 사정으로 여겨지는고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심령인고로 항상 희생적이다. 하나님의 심령은 형제 전체의 사정이 당신의 사정인고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 영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



구세주 조희성남

관심을 안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등의 신인 것이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무덤 심령이 되는고로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모른다. 특권외에는 사로잡혀 우리들만 구원 있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절로 하나님처럼 여기는고로 누구에게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내가 없는, 누구든지 내 사정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항상 어디서나 분이 되어야 한다. 서로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꼭 인사를 나누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한다. 형제가 죽어가거나 형제가 잘못되거나 아랑곳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마귀의 태도이

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희생적인 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정을 일찍이 알게된 이 사람은 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떠는 거지가 불쌍히 보일지 모르나 6천년동안 마귀에게 짓밟혀왔던 하나님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고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하는 기도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제물로 삼아 이것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은 지옥에 던져도 좋습니다.' 그 다음의 구원을 원치 않았다. 오로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그 결심 그 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것을 희생제물로 하여 당신의 뜻

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 뜻을 다 이룬 다음, 온 인류를 다 구원한 다음 이것은 갈레조각처럼 버려도 좋습니다. 당신 뜻만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와같이 끊임 없이 일어나는 그 충성심, 오직 그것만이 있지 언제 한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음란죄요, 욕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고로 항상 희생적인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온유, 겸손하고 정결하고 신성한 마음속에 거하시지,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은 공의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입장에 서지 말라. 상대방 입장에 서고 상대방의 사정을 깊숙히 알고 상대방의 사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공의로운 입장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처음 보고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도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에 서있느냐 마귀에게에 서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일초 일초를 잘 믿어 야지 현재 일초 일초를 잘못 믿으면 작년에 잘 믿은 것은 소용이 없다. 미래도 과거도 필요없는 것이다. 내일부터 잘 믿겠다는 것도 필요없다. 간혹 내게 와서 '내년부터는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말 내년부터

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해도 그들은 못 알아 듣는 것이다. 내년부터 내일부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재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서있느냐 서있지 못하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일초 일초 믿으라는 것이다. 과거도, 미래도 필요없다. 그러므로 일초 속에, 현재 속에 천국이 있지, 과거 속에도 미래 속에도 천국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철학적인 말이다. 현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미래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계신다. 그러므로 현재 속에 하나님을 그대로 내 맘에 모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는 것이다. 영생도 현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영생의 물결 속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영생의 물결 속에 존재하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마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일초 일초 온전한 완전자가 돼라! 했던 것이다. 과거에 잘 믿은 것, 미래에 잘 믿겠다는 결심 다 필요없다. 지금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과거에 잘 믿었던 것, 하나님께 어떻게 기울었던 것 그 과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이다.

이기는 비결은 현재에서 항상 새출발하는 것

항상 오늘이 첫 날인 심정으로 오늘이 출발이고 이 시간이 출발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향상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긴자가 걸어온 발자취요 철학이다. 항상 현재에서 현실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고 온 세상의 마귀를 여지없이 이길 수 있었던 이긴자의 비결이었다. 항상 이러한 생각 속에 움직이는고로 현실에서 계속해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니 일초 전보다 일초 후가 더욱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참성경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 ①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

인류의 시조 아담의 10대손이 노아 할아버지요, 노아 할아버지의 11대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아담의 9대손)이 56세가 될 때까지 산 뒤 930세에 임종했습니다. 만약 라멕이 노아를 56세 이전에 낳았다면 아담은 노아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노아의 10대손)가 128세 될 때까지 산 뒤에 950세에 임종했습니다. 노아가 죽은 지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장자 셈은 노아의 조부 무드셀라가 죽은 지 2년 후에 태어났으며, 아브라함 150세 되던 해까지 살다가 600세의 나이로 셈이 임종했습니다. 셈이 죽을 때에 이삭은 5세였고 셈이 죽은 지 10년 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손자 아르박삿이 아랏산을 떠나 남쪽 우르(U)로 향하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마주치는 곳 가까이 갈대아(Chaldea) 지방의 우르(Ur)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노아홍수가 일어난 지 1년 후에 셈의 자식으로 태어난 쌍둥이 엘람과 앗수르 형제 중에 형 엘람의

후손, 카스디의 아들 우르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갈대아(Chaldea)의 지명은 우르의 부친 이름 카스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두 번째 아들 앗수르가 페르시아(지금의 이란) 지역을 차지할 때에, 페르시아에 먼저 들어와서 거주하던 노아의 첫 번째 아들 함이 낳은 장남 구스의 족속들이 앗수르 족속들에게 떠밀려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노아홍수가 일어난 지 2년 후에 셈의 세 번째 자식으로 태어난 아르박삿은 노아장자가 정박했던 아랏산 부근(지금의 터키 동부)에서 자랐습니다. 아르박삿 75세 때에 40세의 아들 셀라와 10세의 손자 에벨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티그리스 강 동쪽, 오늘날 이라크 북부의 모술에 속해 있는 니느웨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구스노아의 맏아들 함이 낳은(장자)의 아들 니므롯이 니느웨 도시를 건설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서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욱단을 낳았습니다. 욱단은 남부 아라비아로 내려가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벨렉 28세 때에 127세의 증조부 아르박삿과 함께 티그리스 강 줄기를 따라 남하하여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우르(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와서



바벨탑 건설 - Hendrick van Cleve III (1525-1589)

정착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바벨탑이 무너지다

에벨은 아르박삿의 손자입니다. 그는 조부 아르박삿과 부친 셀라를 따라 니느웨에 10살 때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34세 되는 해에 벨렉을 낳고 그 이후에 욱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벨 자신은 니느웨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464세에 임종할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놀려앉아 살았습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은 후 그리고 욱단을 낳기 전, 그 사이에 니느웨에서 500킬로미터 남쪽

에 있는 바벨론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과 언어가 하나였던 세상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혼잡한 언어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에벨을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여러 환경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뜻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에벨의 아들, 벨렉의 이름은 '나뉘어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으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

에벨의 장자 벨렉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르박삿을 따라 우르로 내려갔지만, 또 다른 에벨의 자손들은 니느웨에서 400킬로미터 동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란 근방의 밧단아람에서 정착하던 에벨의 삼대손 '빌라'를 브두엘의 아들이 되는 리반의 여종으로 들어가게끔 행하셨습니다. '빌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머니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장자상속을 받은 '단'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빌라 아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남

아르박삿은 할아버지 노아와 아버지 셈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생지를 떠나 남쪽으로 무려 1000킬로미터(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나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 줄기의 큰 강물이 만나는 곳으로 비옥한 갈대아 지방(시날 평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정착한 지 2년 후에 벨렉은 아들 르우를 낳았습니다. 르우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인데, 데라 130세

에 둘째 아들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에게는 데라 70세에 낳은 형 하란이 있으며 데라 131세에 낳은 동생 나홀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노아의 손자 아르박삿이 아랏산 부근에서 대규모의 친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지방에 와서 정착한 지 벌써 25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의 다른 지방보다 문명이 빠르게 발달한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노아홍수 이전에도 매우 발달하였으며, 그곳에서 번영을 누렸던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일러 '상기가(sag-gá-ga: 검은 머리의 사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족속은 아담의 모습 그대로 검은 머리카락과 황색피부를 그대로 보존한 아담의 직계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수메르'라는 명칭은 노아의 장자 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10대손 노아까지 갈대아 우르 근방에서 살았으며, 대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은 곳도 우르 근방에 있는 우거진 산림지역이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자 우르에서 방주가 북쪽으로 떠밀려가 터키의 아라랏산에 도달하였는데, 거기에서 아르박삿은 그의 친족을 이끌고 아버지 셈의 고향 우르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